

# 고흥유자축제 준비 순항... 11월, 고흥은 유자 향기로 색칠

## 11월 6~9일, 풍양면 한동리에서 펼쳐지는 '사람향기! 유자천국!!' 축제의 향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열리는 '제5회 고흥유자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사람향기!(Humanity) 유자천국!!(Ujatopian)' 슬로건 아래, 고흥유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더욱 풍성하게 꾸밀 예정이다.

특히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유자밭 야간경관 개방 ▲유자 전

망대와 루미너리(빛의 환희) ▲멀티미디어 드론쇼 ▲대형 유자 조형물 등 다채로운 야간 콘텐츠를 선보이며,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축제로 거듭난다.

또한 유자밭 힐빙가든에서는 뮤지컬, 번사극, 음악회 등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마련해 축제의 품격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향토음식관 운영 ▲'유자 농가의 날' 길놀이와 샘굿 퍼포먼스 ▲유자따기·유자 경매·생유자 먹기대회 등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고흥유자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과 이번 제5회 축제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유발효과 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교통대책·홍보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국에서 사랑받는 명품 축제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강진 고향사랑기부 추천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오는 29일부터 2주간 너랑나랑 강진사랑기부 이벤트 진행

강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너랑나랑 강진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도 3년 차에 추석 연휴 기간 강진 고향사랑기부자와 군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방법은 오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고향사랑e음'을 통해 강진군에 10만원 이상 기부자를 2명 이상 추천하고, 강진군청 총무과에 메일(todaykph88@korea.kr) 또는 전화(061-430-3708/3592) 신청하면 된다. 내용 확인 후 추천인에게는 슈퍼푸드 강진 쌀귀리빵 세트가, 기부자에게는 쌀귀리 2kg이 증정된다. 추천인이 기부시 2명 이상 기부자 산정에 포함되어 두가지 품목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중순 개별 공지 및 경품 발송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여름 행사의 성원에 힘입어 한가위 맛이 고향사랑기부 담례품 기본 혜택에 더해 강진 쌀귀리를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9일간 예정인 '제10회 강진만추추는갈대축제'에도 기부자에게 보답할 고향사랑기부 이벤트가 예정이다.



2025년 강진 고향사랑 기금사업 '홀로사는 노인을 위한 클린-업'이 읍면 복지회관 빨래방 설치, 경로당 에어컨·냉장고 교체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담례품이 제공된다. 담례품은 한우, 쌀, 파프리카, 전복 등 강진 대표 농수축산물과 푸소 체험권, 강진사랑상품권 등 다채로운 품목들이 마련돼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보성군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 특화 자원-지역개발 분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행정시책을 발굴·확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정 시책 경연대회이다.

올해 대회에서는 ▲지역 활력 제고 ▲지방 물가 안정 ▲지역 청년 지원 ▲저출

## 보성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국토교통부장관상 지역개발 분야 지중화 사업 7억 원 예산 절감 등 성과 인정받아

생 극복 ▲지역 특화 자원 개발 5개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했다.

보성군은 중심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 강화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력선 지중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지자체 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 약 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내 전선수가 사라져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고, 도시경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그 효과가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217억 원을 투입해 보성읍과 벌교읍 중심지를 대상으로 단계적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보성군은 전남 중부권을 대표하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무안군, 우리 바다(with 탄도) 알기 현장답사 추진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무안군 유일의 유인섬 탄도와 우리 바다 알기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답사는 무안군에 근무하면서 탄도를 방문해 본 공직자들이 드물어 탄도를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군 공직자들이 관내 바다 생태계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가고 싶은 섬 탄도' 방문 및 섬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올해 6월 2일 김보성 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 공직자들이 탄도를 탐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 제공



곡성군 4-H연합회, 추석맞이 농심 키우는 봉사활동

곡성군 4-H연합회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고향가정마을과 고달면 뇌죽·뇌연마을에서 '지역사랑실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 농업인의 공동체 의식과 농심을 가꾸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회원들은 마을 주변 풀베기 작업과 농경지 일원에 방치된 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며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썼다. 특히 마을회관과 진입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귀성객들이 한층 밝고 정갈한 고향 풍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회원들은 "앞으로도 지역에 보탬이 되는 청년 농업인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곡성/이정수 기자



영광군, 추석맞이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동참

영광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에 동참하여 도로변, 관광지, 하천 등에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정화 활동은 국민 참여 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의 일환으로 9월 23일 가마미해수욕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장세일 영광군수와 김영식 영광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환경정화활동에 함께해주신 영광강유역환경청과 명예환경감시단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새단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